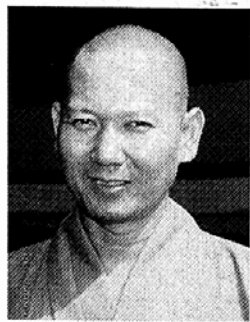


### “산중 禪을 대중속 禪으로”

#### 한국선학회 초대회장 현각스님



“선방에 머물러 있는 선(禪)을 대중들의 삶으로 수월하게 데 노력할 것입니다.”

18일 한국선학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현각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선이 보다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학회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먼저 선을 출가 수

행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한 채, 선사들의 말이나 화두를 해석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토를 개선할 계획이다. 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선사의 깨달음이 언설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 동안 불교 관련 학회들이 몇몇 특정 대학이나 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며 “한국선학회를 전국 규모의 학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선학회는 이 미울 한해 동안 다들 주제와 발표자를 선정한 상태다. 또한 불교학자들과 일반 회원들이 등·하계 방학 때 산중 스님들과 함께 실상 수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 “맑고 깨끗한 생태환경 지킨다”

#### 전남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스님

“지리산 및 섬진강 생태계 보호와 영광·여수지역의 반핵운동, 남해안 관광벨트와 반대운동, 2010년 해양 EXPO 회적지 선정, 씨 프린스호 사건 후유증 제거 캠페인 등에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4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회에서 공동의장에 선출된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문수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심정정 국토청정(心淨淨 國土淸淨)’을 여법하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 정회원 500명, 상근 직원 4명의 자생력을 갖춘 단체로 키워내면서 여수·여천공단 지역의 환경 지킴이로 이름 높은 진옥 스님은 앞으로 신안, 구례 등 전남지역 3곳에 지역환경단체를 더 창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정치색을 띠고 이익단체화 할 경우 즉각 폐쇄시킨다는 것이 스님의 방침.

환경단체는 자생력과 공정성이 생명기에 반드시 회원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스님은 자립기반을 갖춘 제대로 된 불교환경단체가 있어야만, 정부와 종단을 향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불자들이 계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옥스님은 평소 애용이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해 왔다. 국립공원지역 사할의 오폐수 방출 문제, 건축물사로 인한 산림 및 매장문화재 훼손,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생문제 등 사할과 관련한 수행·문화재·생태환경이 모두 위험에 처해 있기에 불교계의 각성과 스님·신도들의 환경 마인드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

스님은 또 “장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종단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스님은 자립기반을 갖춘 제대로 된 불교환경단체가 있어야만, 정부와 종단을 향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 미안마 불교계 시찰차 출국



원로원장 소비타 스님의 탄신 90주년 기념 축하연 참석 등 미안마 불교계를 돌아보기 위해 21일 출국했다. 29일 귀국.

#### 노인 주간보호센터 열어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했다.

#### 21세기의 한국선 학술회의



기의 한국선’을 주제로 제2차 덕송 선

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이행서서 참선실수 지도



이다.(0634)533-3521

#### 동국대에 발전기금 2천만원



인공이다.

#### 한국불교연구원 26돌 기념법회



회를 병행한다. 연구원은 그동안 불교

의 연구·수행·실천을 통해 지성불교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02)3411-6167~8

#### 최재구 회장 추모사업 모임



추모사업회를 위한 동문 모임을 가졌다.

#### ‘불교와 학문의 만남’ 출판회

신준식 법륜불자교수회장은 19일 청도 운문사 대웅전에서 <불교와 학문의 만남> 출판기념회를 병행했다. 이날 법륜불자교수회는 운문사에 동양화 ‘운문사계(雲門四季)’ 기증식도 가졌다.

#### 서울미래 조소과 동문 그룹전



과 동문 그룹전 ‘어느 조각 모임’ 전시회를 가졌다.

#### 해강맹인복지회 11월 법회

김부봉 해강맹인복지회 회장은 26일 춘천시 남산면 수동2리 와룡산 보림원에서 창립11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했다.



#### 승암스님 49재 영산재로 봉행

지난 2월 1일 입적한 인간문화재 승암 스님의 49재가 20일 신촌 불인사 특설도량에서 영산재로 봉행됐다. 만봉(무형문화재 제48호 탕화 기능보유자)·법홍(원효종 종정)·인공(영산재보존회 회장)·구해(범음대 학장) 스님 등 1천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부 추모법회와 2부 영산재로 진행됐다.



#### 명락사 창건 25돌 기념법회

천태종 서울 명락사(주지 도인)가 창건 25주년 기념 법회를 19일 명락사 4층 법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윤덕스님, 감사원장 정선스님, 교무부장 춘광스님 등 종단 간부스님들과 김희철 관악구청장, 이상현·이훈평 국회의원, 명락사 신도 등 2천 여명이 동참,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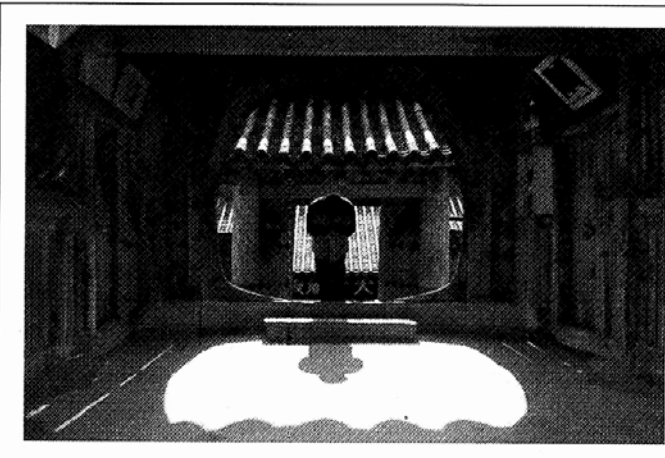
#### 불교신문 창간 40돌 축하연

불교신문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간 4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발행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격려사에서 “과사현정 정문지필의 연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석주 스님(철보사 조실),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스님, 종회의장 법준스님, 서영훈 새천년 민주당 대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박준영 청와대공보수석 등 불교계와 정·관·언론계 등 5백 여명이 참석했다.



#### 농림부 불자모임 ‘농불회’ 창립

농림부 불자회가 23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발표했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창립법회에서 농불회는 월례법회를 정례화하고 심심합양에 힘을 다질 것이다. 회장에 나승렬 농지과장, 부회장에 박상일 사무관이 선출됐다. (02)503-7264



### “통일한국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 리영희교수 조계사 열린강좌

조계사(주지 지홍)는 18일 리영희 교수(한양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교유문화회관에서 제11회 열린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통일의 도덕성’을 주제로 강연한 리 교수는 “살기 좋은 통일국가를 위해서는 도덕성이 회복돼야 하며 종교가 그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요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통일이 남한의 체제를 확대 재상산하는 형태, 다시 말해 경제적 흡수통일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으로,

통일된 국가는 남한의 체제도 북한의 체제도 아닌 새로운 형태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한사회는 죽이고, 뺏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본주의적 극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국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 못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도덕성이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미 학교가

### 장경각에 핀 ‘그림자 연꽃’

해인사 장경각에 연꽃이 피었다. 이 연꽃은 1년 가운데 낮과 밤의 길이가 똑 같은 춘분(春分)날에만 피어난다. 지난 20일 이 바로 그날, 오후 2시 장경각 안으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해 서서히 그림자의 위치가 이동하더니, 오후 3시에 연꽃 모양의 그림자가 극적으로 연출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ybg@buddhopia.com)

풍괴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도덕성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종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통일 후에도 이런 도덕성은 끊임없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종교계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하며, 개개인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통일된 국가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을 동결 단행!!

- 어려운 사할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할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조립용(8cm) ◆ 조립용위에 인원을 붙인 상태 ◆ 연동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 ★ 야외장엄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 ★ 경제적인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삼·부·농·산·순·슈·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저쪽'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신요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씌이어서 열매가 열리게하기를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물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노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 숙이 편치 않으신 분
-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 팔다리가 아프신 분

차나 술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부농산 SAM BU Fa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